

## “제4회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관련 국제포럼” 참가안내

본회는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우리 전자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방향제시와 세계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매년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국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21세기 한국전자산업의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주요기업의 해외투자사례 및 현지화평가, 외국 투자유망지역의 투자환경 소개 등의 내용으로 현재 해외 진출중이거나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한 외국상무관 및 외국의 주요 투자기관 대표와의 면담기회도 있을 예정인 바 본회 회원사 및 관심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요망드리오니, 참가 희망업체는 '97. 9. 20(토)까지 별첨양식에 따라 본회 국제부(Tel : 553-0941/7(교272), Fax : 563-737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97. 10. 15(수)~10. 17(금)
2. 장소 : 하얏트 리젠시 호텔(부산 해운대)
3. 참가대상
  - 본회 회원사 및 전자·정보산업체 주한 외국 공관, 해외투자 유관기관, 주한 외국인업체 임직원
4. 내용 및 일정
  - \* '97. 10. 15(수)
    - 주제발표...
      - 21세기 한국전자산업 세계화 비전과 전략 (바람직한 해외투자 형태와 전략의 모색을 중심으로)
    - 환영 리셉션

- \* '97. 10. 16(목)
    - 주제별 세미나...
      - 한국 주요전자업체 해외사업 경영 노하우 소개
      - 해외 투자 유망 지역 소개
  - \* '97. 10. 17(금)
    - 문화유적 탐방(혹은 골프 : 선택)
5. 사용언어 : 영어, 한국어(동시통역)
  6. 참가비 : 30만원/1인(교통 및 숙박비 일체)
    - \* 부부동반인 경우 10만원 추가
    - \* 10. 17 골프라운딩 희망의 경우 13만원 추가
  7. 참가비 납부 : 1997. 9. 20까지 은행온라인송금
    - 상업은행 : 196-05-066523, (예금주)한국전자산업진흥회
  8. 신청 및 문의처 : 본회 국제부 국제협력과 (T.553-0941/7(교271,272,273))

## 아시아(일본, 홍콩, 대만) 지역 전자전 시찰단 모집 안내

본회는 오는 10월 일본, 홍콩, 대만에서 열리는 「일본전자전(Japan Electronics Show '97)」, 「홍콩 전자전(Hong Kong Int'l Electronics Fair '97)」, 「대만전자전(Taipei Int'l Electronics Show '97)」을 참관할 시찰단을 모집합니다.

일본, 홍콩, 대만전자전은 전자·전기·통신제품을 비롯한 부품소재까지 모든 첨단 제품이 전시되는 최대규모의 전시회로서, 일본의 선진기술력, 홍콩, 대만의 경쟁력을 앞세운 전자산업과 국내 전자산업을 비교분석하여 급변하는 해외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릴 본 전시회 참관 시찰단에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97년 9월 2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찰단명 : 아시아지역(일본, 홍콩, 대만) 전자  
전 시찰단

나. 전시회명 및 기간 :

- 일본전자전(1997. 10. 6~10일)
- 홍콩전자전(1997. 10. 14~17일)
- 대만전자전(1997. 10. 16~21일)

다. 참관기간 : 1997. 10. 9~10. 17(8박 9일)

라. 참관경비 : 1,970,000원

마. 신청마감 : 1997. 9. 20일(토)

바. 신청방법 : 참관신청서를 본회에 팩스 송부  
참관경비 온라인 송금(본회대행사)

사. 신청 및 문의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제협력과  
(Tel : 554-6739, Fax : 563-7371)

- 중견중소업체 부품개발 담당자(과장급 이상),  
중견간부

◇ 현지활동사항 : 중견부품공장 견학 및 간담회/  
세미나 청취/전시회 참관(국제Robot 전)/개  
별활동

◇ 참가경비지원 : 체제비(5박 6일 숙박비 및 조  
식·중식, 현지어동 교통비) 전액 지원 단, 왕  
복항공운임 및 석식비용만 참가자 개인부담

◇ 참가신청방법 : 당협회 소정양식 신청서 1부  
작성후 FAX로 송부(신청서는 당협회 비치)

◇ 신청마감 : (선착순 마감)

◇ 참가업체 선정은 당협회 내부규정에 의하여 선  
발후 통보 예정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사)한일경제협회(담당  
: 총무부 조덕묘과장/박현찬대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  
역회관 705호 TEL : (02)551-1541~9

### '97한국방일산업기술교류촉진 및선 파견에 따른 참가업체 모집

한일정상회담('92. 1)의 후속조치로 한일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방일 산업 기술교류 촉  
진및선」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당협회에서는 사업대행기관으로서 아래와 같  
이 표제및선의 참가단원을 모집하오니 중소기업 관  
계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파견목적 : - 일본 중견·중소부품업체와의 교  
류촉진 및 기술협력 강화
- 일본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상과 노사협력에 대한  
경험 취득
- 산업기술에 관한 세미나청취 및 공장견학 등을  
통해 이업종간 교류 등을 실시
- ◇ 파견기간 및 지역 : '97. 10 27(월)~11. 1  
(토)/나고야, 동경
- ◇ 단원구성 : - 일반기계·자동차, 전자·전기 2  
개그룹 40명

### 미국 (Rhode Island) 무역사절단 방한 무역상담 희망

오는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미국 Rhode Is-  
land 주에서 무역사절단이 방한합니다.

주지사 Lincoln Almond의 인솔하에 Rhode Is-  
land에 소재한 11개업체가 참가하게 되는 이번 무역  
사절단은 한국의 수입업체들과 무역상담을 할 예정  
입니다.

특히 Rhode Island 무역사절단의 참가업체중  
Advanced Interconnections사와, Chip Coolers사,  
그리고 Coto사는 한국의 전자부품수입업체, Com-  
puter 관련기기 제조업체 및 전자기기 OEM 제조  
업체들과의 상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의 자세한 상품소개 및 수입상담에 관심  
있는 업체는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과 최 윤실 상무  
담당관(전화 02-397-4439, 팩스 02-739-  
162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사들의 주요수출품목은 다음과 같다.

- \* Advanced Interconnections :
  - Ball Grid Array(BGA) Socket Adapter Systems
  - Pin Grid Array(PGA) Sockets and Adapters
  - SocketPac : Power Module Sockets for DC/DC converters
  - Board to Board Interconnections.
  - Advanced Adapters
    - K-TEA TM Test Emulaturator Adapters
- \* Chip Coolers : Chip coolers
- \* Coto : Small signal switching deviced
  - Reed Ralsys
  - Solid Statc Relays(SSRs)
  - Electromechanical Ralsys(EMRs)

## 환경신기술 평가제 도입

외국의 우수한 환경신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고 국내의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9월에 환경관리공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환경관리공단내에 환경신기술 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해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신기술 평가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올해에는 △ 폐·하수 고도처리기술 △ 폐기물 소각처리기술 △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등 5개 공공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5개 공공분야 이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등 민간수요 기술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평가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확대, 특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거친 우수 기술에 대해 관보에 공고해 지자체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정서 발급과 함께 관급공사 시공실적 인정 등 혜택을 주며 지자체에서 인정기술을 사용할 때 국고보조금 등 국고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 벤처기업 투자 개인·조합에 세금감면 혜택

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할 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 창업 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증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3% 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 개인당 투자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는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거나 벤처빌딩을 건립할 때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연간 임대 효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할 수 있고 임대기

간도 20년까지 가능케 해 국유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에어컨 재활용 지침 마련

내년부터 선보이는 에어컨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서 정한 재활용 지침을 지켜야 한다.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의 재활용 지침을 일부 개정, 제1종 지정제품으로 TV·세탁기·냉장고 이외에 에어컨을 추가하는 한편 제품설계시 사전평가 내용을 변경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출하할 예정으로 개발중인 에어컨 신모델은 이 지침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감량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친환경 제품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 이들 1종 지정제품을 제품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는 단순히 처리시설만 갖추는 수준에서 공동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회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재활용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못박았다.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1종 지정 가전제품의 설계시 재생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했던 조항을 없애고 사전평가항목도 8항목 21개에서 8항목 16개 기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바꾸었다.

그러나 분리분해 용이성 평가시 파쇄가 용이하지 않은 부품의 사용평가와 선별분류 용이성 평가시 부품의 동일 재질화, 부품의 표준화 평가 등은 새로 추가됐다.

## 공산품 '가격표시' 변경

정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개선, 현행 「공장도 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는 가격표시 요령(명칭)을 「공장출고 가격」으로 변경, 표시토록 하는 한편 공장출고 가격 산정방법도 현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청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을 앞으로는 제외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도 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는 공산품가격 표시요령을 「공장출고 가격」으로 변경하고 「공장출고 가격」 산정방법도 제조업체의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이윤·제세는 인정하되 주문자 생산에 의한 하청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은 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수입원가로 표시하며 수입원가에서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가 관행적으로 표시하던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의 경우 「권장」 또는 「희망」 소비자가격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진정한 오픈 프라이스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격표시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상품에 소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제의 이행에 있지만 공장도 및 수입가격 표시의 전면 폐지는 소비자에 불이익이 갈 수 있고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없지않아 일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각 업종단체에서 새로운 표시요령을 실시하기 위해선 2~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은 올 연 말께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